

研究論文

#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변화

2004년 「생활시간조사」를 중심으로

김복수

한국학중앙연구원 사회학부 교수, 언론학 전공

kimboksu@aks.ac.kr

- I. 머리말
- II. 선행 연구의 검토와 연구 문제
- III. 자료 및 조사 대상의 특성
- IV.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의 차이
- V.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변화와 특징: 1999-2004년
- VI. 맺음말: 요약 및 함의

이 논문은 2009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문화심층연구사업 공동과제로 수행된 '현대 한국사회에서 한국인의 일상생활: 역동성과 다양성' 연구임(2009-12).

## I. 머리말

현대 산업사회 이후의 일상생활은 노동과 여가가 구분되면서 전통사회의 일상생활 구조와 전혀 다른 형태로 재편되어왔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발달과 함께 노동과 여가의 분리는 도시화와 소비문화의 도래로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고, 생산과 소비의 자본주의 순환구조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해왔다.<sup>1)</sup> 오늘날 현대인들은 직장은 ‘쉽 없이 노동하는 곳’이고 직장 밖은 ‘노동 없이 쉬는 곳’으로 인식하면서 여가를 위한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통사회에서 일상생활은 노동(일)이 중심이고 노동 외 활동은 노동의 주변에 위치한 기타 활동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이때 노동은 공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활동이고 나머지 활동은 가족생활 중심의 사적인 시간과 장소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적 활동으로서 노동이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나머지 사적 활동들은 기타의 사소한 활동으로 취급되었다.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으로부터 여가가 점차 분화되면서 여가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학문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하였다. 여가는 자본주의의 발달과 함께 민주주의 의식이 사회적으로 형성되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다양한 운동과 함께 증대되어왔다. 그리고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의 질적 강화와 노동시간의 단축(기술의 발전과 효율화)의 결과로부터 초래된 사회현상으로, 노동자가 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장하게 되면서부터 여가의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산업사회 이후 노동권의 점진적인 확대와 노동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시간의 증가, 인간답게 삶을 영위하는 문제 등에 대한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이론적 연구가 유럽(프랑스 중심의 일상생활에 관한 이론 및 현상학)을 중심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자유시간)에 대한 논의가 특히 사회학과 경제학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어왔다. 이에 관한 초기 연구자들은 대체로 일상생활을 노동과 여가를 중심축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예컨대, 현대 미국인들의 사회적

1) 파커, 『현대사회와 여가』(일신사, 1995), 31-45쪽.

지위가 향상될수록 그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다. 쇼는 일찍이 1998년에 발간한 그의 저서에서<sup>2)</sup>, 오늘날 미국인들은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고 있거나 업무시간이 너무 많으며, 그런 만큼 상대적으로 여가시간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따라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낮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보다 여가시간이 더 적으며, 대신 적극적으로 고급스러운 여가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구의 사회변동의 흐름과 유사하게 한국사회도 탈산업사회적 면모를 보이면서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이 새롭게 재구성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동으로 서비스산업이 확산되고 정보기술의 발달로 업무처리 속도도 확연하게 달라지는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사회적 흐름의 결과로 나타는 24시간 사회의 확산은 이론적으로는 여가시간의 무한한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노동시간의 무한한 연장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 그런 만큼 탈산업사회의 면모를 지닌 한국사회가 과거보다 여가시간이 확연하게 증가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 삶의 질이 좋아졌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국사회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이 글에서는 한국인들이 처한 각기 다른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여가활동 시간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탐색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여가활동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대중매체 이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한국인의 여가생활과 대중매체 이용’이라는 주제 아래 2004년 통계청에서 조사한 ‘생활시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분석 자료의 검토과정에서 변화과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1999년 자료와 비교 연구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들의 여가활동 시간의 전체적인 분포와 사회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여가시간의 활용, 나아가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거시적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면밀한 통계적 검증보다는 여가활동과 대중매체 이용시간 간의 쟁점을 부각시키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

2) Juliet B. Schor,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New York: Basic Books, 1992); *The Overspent American: Why We Want What We Don't Need*(New York: Basic Books, 1998).

## II. 선행 연구의 검토와 연구 문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 성과들은 지난 10년(1999년, 2004년, 2009년) 동안 지속적으로 축적되어왔다. 개별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집단 프로젝트(대표적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를 통해서도 생활시간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들 중에서 최근 생활시간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한 김외숙은 한국인의 여가생활에 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한국인의 여가생활 시간은 가장 짧다. 각국 모두 성인의 여가시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동은 미디어 접촉이고, 특히 미국인의 미디어 종속성이 높다. 남성의 여가시간은 여성보다 1일 평균 30분 정도 더 길다. 한국인의 참여 및 봉사활동 시간이 서구 국가에 비해 짧으며 한국 여성의 종교활동 시간이 다른 국가 및 한국 남성보다 길다. 한국과 미국의 유배우 기혼여성 중 여가생활 시간이 가장 긴 집단은 한국의 전업주부이다. 미취학자녀 유무별로는 미취학자녀가 없는 한국의 전업주부가 여가생활 시간이 가장 길고 미취학자녀가 있는 한국의 취업주부가 가장 짧다.<sup>3)</sup>

김외숙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맥락에서 국내의 여가생활 시간과 관련한 선행 연구를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 요약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여성이 남성보다 여가시간이 짧고, 특히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이 크게 부족하며, 저소득층의 경우 여가활동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정 내에서 소극적인 여가활동을 하고 있다. 예컨대, 황익주의 연구에 따르면, 성남의 기혼 노동자들의 여가생활은 진업과 특근, 맞벌이로 여가시간이 크게 부족하다.<sup>4)</sup> 가정 및 가족 중심적인 여가활동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정이라는 공간 내에서 행하는 소극적인 행태의 활동들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인의 높은 텔레비전 종속성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경우에도 여가생활이 텔레비전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이재현은 여가생활과 관련한 일련의 계속적

3) 김외숙, 「생활시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가 워크숍 PPT 자료 파일 (2009).

4) 황익주, 「공장 노동자들의 여가생활: 경기도 성남지역 노동자들의 사례 연구」, 문옥표 편, 『한국인의 소비와 여가생활』(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169쪽.

인 연구를 통해 “텔레비전에 의한 여가의 식민화, 여가 패턴의 동시화, 여가의 관행화, 생활양식의 사사화, 미디어 대체, 사회자본과 텔레비전 시청의 차별화” 등과 같은 현상이 한국인의 일상생활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5)</sup> 이와 관련하여 김복수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개인별 하루 평균 여가시간은 총 308.39분이고, 그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130.42분(여가시간 대비 42.3%)이며, 하루에 10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사람이 전체 8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0분 이상 텔레비전을 시청한 사람들의 평균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무려 151.74분(여가시간 대비 49.2%)이나 되며, 성별로는 여성의 여가시간이 남성보다 47분 적지만 전체 여가시간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시간 비율은 여성 44.7%, 남성 40.0%로 여성이 남성보다 4.7% 높게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이제현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sup>6)</sup>

셋째, 2002년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가족 중심 야외 여가활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과거와 같이 미디어 이용이나 단순 휴식과 같은 재택 여가행위보다는 스포츠나 레저, 여행처럼 집 밖 여가행위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미디어의 이용과 공연문화에 대한 접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야외에서 가능한 활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세혁은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사람들은 증가한 여가시간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자유감을 최대한 만끽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7)</sup> 김현주의 경우에도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국인들이 가족 중심의 야외 여가를 많이 즐기게 되면서 스포츠나 레저, 여행과 같은 밖에서의 여가행위가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하지만 늘어난 여가수요를 감당할 만한 사회적 여가활용 자원이 부족하고, 여가시간이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보이지 않는다고

5) 이제현의 여가생활과 텔레비전에 관한 주요 연구들로는 『生活樣式의 私事化와 텔레비전에 대한 依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3); 『勞動과 텔레비전, 그리고 生活 패턴의 同時化』, 『언론정보연구』 제31집(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1994); 『생활시간 패턴과 텔레비전 편성』, 『방송문화연구』 제8집(한국방송공사, 1996); 『여가,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생활시간으로 본 미디어 구도의 변화』, 『방송문화연구』 제13집(2001) 등이 있다.

6) 김복수, 「한국인의 여가와 미디어 사용」, 오만석 외,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I-생애주기별 접근』(한국학중앙연구원, 2005A), 260쪽.

7) 박세혁,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가족 여가 살리기」, 『제1회 여가·문화 포럼-주5일 근무제 도입과 생활문화의 변화』 자료집(여가·문화학회, 2002).

지적하고 있다.<sup>8)</sup> 이 외에도 주말에 어떤 여가활동을 하였는가를 주5일 근무제 실시집단/비실시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족과 함께 보내기’는 각각 41.6%와 29.5%, ‘문화활동’은 7.8%와 18.5%, ‘미디어활동’은 18.6%와 30.2%, ‘스포츠활동’은 21.0%와 13.6%, ‘집에서 휴식하면서 텔레비전 보기’는 32.2%와 44.5%, ‘잠자기’는 5.2%와 13.0% 등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집단이 ‘스포츠활동’ 등에서 비실시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sup>9)</sup> 유사한 맥락에서 최용준의 논의는 이러한 사실을 더욱 뒷받침해준다. 그는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평일보다 주말에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증가했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시간의 감소는 곧 여가의 증가를 가져왔지만, 그것은 텔레비전 시청시간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보았다.<sup>10)</sup>

이 글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여가활동의 중분류, 소분류 수준에서 여가시간을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변인을 중심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① 주요 인구학적 특성별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여가시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② 대중매체 이용 여가 행동과 여가시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③ 텔레비전 이용 여가 행동과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④ 컴퓨터·신문·라디오·비디오 이용 여가 행동과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인가, ⑤ 여가활동과 주요 여가 행동에 변화(2004년과 1999년 자료의 비교)가 있는지 등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 III. 자료 및 조사 대상의 특성

이 글에서 사용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2004년에 실시한 ‘생활시간조사’이다. 1999년과 2004년의 변화과정을 검토한 경우에는 1999년에 실시한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도 함께 사용하였다. 두 자료의 비교 분석에서는 변화 양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세대, 계층, 집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8) 김현주 외,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장인들의 주말 여가문화 이용 행태 변화-설문 조사를 통한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1회 여가·문화 포럼-주5일 근무제 도입과 생활문화의 변화』 자료집(여가·문화학회, 2002).

9) 여가·문화학회,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직장인 생활 변화에 대한 조사』, 여가·문화학회 조사연구보고서(2002).

10) 최용준, 『주5일 근무와 TV시청』(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86-87쪽.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을 시작으로 5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다. 200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의 조사 규모는 전국 1만 2750가구의 만 10세 이상 가구원 3만 2191명이며, 최종 응답가구 및 가구원은 1만 2651가구 3만 1634명(응답률 98.3%)에 이른다. 조사는 2004년 9월 2일부터 9월 13일까지 12일간 실시되었으며 응답자가 직접 10분 간격으로 설계된 시간일지에 자신이 한 행동을 일기 쓰듯이 2일 동안 직접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다.

이 글의 분석 대상인 여가활동에 대한 세부 분류는 통계청의 분류체계에 따라 대·중·소로 나누어 ① 교제활동(교제 관련 전화통화, 가족·친척과의 교제, 그 외 사람들과의 교제, 인터넷을 이용한 교제, 성묘, 별초 등, 기타 교제 관련 행동), ② 대중매체 이용(신문, 잡지, 텔레비전, 비디오, 라디오, CD, 테이프 등 음악 듣기, 컴퓨터 정보이용), ③ 관람 및 문화적 행사 참여(영화, 연극, 콘서트, 전시회, 박물관, 스포츠 경기 관람, 기타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관련), ④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걷기, 산책, 등산, 하이킹, 체력단련을 위한 개인운동, 그 외 스포츠, 드라이브, 소풍, 관광 및 구경, 그 외 집 밖의 레저활동), ⑤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독서, 컴퓨터 게임, 놀이, 그 외 취미활동, 유흥, 담배 피우기, 아무것도 안하고 쉬) 등 5개의 범주로 나누었다.<sup>11)</sup>

이 글의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2만 9798명(47.1%)이고 여성이 3만 3470명(52.9%)이다. 세대별로는 청장년(20세 이상 65세 미만)이 4만 4800명(70.8%)으로 가장 많으며, 교육수준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 38.7%, 고등학교 졸업 34.5%, 대학교 이상 26.8%의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59.6%, 미혼자 30.7%, 사별 혹은 이혼한 사람 9.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도시 크기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47.8%), 경제활동별로는 수입노동이 있는 사람(55.5%)이 없는 사람보다 더 많다(자세한 내용은 표1 참조).

11) 여기서 여가활동은 통계청 2004년 생활시간 행동분류 중에서 대분류 중 일반인의 학습, 종교활동, 교제 및 여가활동 관련 물품구입, 기타 여가 관련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을 의미한다.

표1-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변인	사례 수(명)	백분율(%)
성별	남성	29,798	47.1
	여성	33,470	52.9
연령	10대	10,714	16.9
	20대	8,588	13.6
	30대	12,306	19.5
	40대	12,922	20.4
	50대	7,830	12.4
	60대 이상	10,908	17.2
세대	청소년(19세 이하)	10,714	16.9
	청장년(20세-65세)	44,800	70.8
	노인(65세 이상)	7,754	12.3
학교급	초등학생	3,286	27.2
	중학생	3,360	27.8
	고등학생	2,992	24.7
	대학생	2,462	20.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504	38.7
	고등학교	21,796	34.5
	대학교 이상	16,968	26.8
혼인상태	미혼	19,394	30.7
	유배우	37,732	59.6
	사별, 이혼	6,142	9.7
도시 크기	대도시	30,254	47.8
	중소도시	18,550	29.3
	농어촌	14,464	22.9
경제활동	경제활동	35,116	55.5
	비경제활동	28,152	44.5
직업	전문직·관리자	2,940	4.6
	기술공·준전문가	2,844	4.5
	사무종사자	4,324	6.8
	서비스·판매	8,134	12.9
	농림어업·숙련업	4,726	7.5
	기능원·관련 종사자	3,530	5.6
	장치, 기계조작·조립 종사자	3,738	5.9
	단순노무·기타 종사자	3,898	6.2
	학생	12,356	19.5
	무직	16,778	26.5
월소득	100만 원 미만	11,486	36.2
	100만 원-200만 원	12,244	38.6
	200만 원-300만 원	5,074	16.0
	300만 원 이상	2,930	9.2
조사 요일	평일	37,955	60.0
	토요일	12,704	20.1
	일요일	12,609	19.9



## IV.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의 차이

### 1. 성별 · 연령대별 · 직업별 여가활동 시간의 특징

이 장에서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여가활동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04년 9월 현재 10세 이상 한국인의 여가시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4시간 47.1분(287.1분, 약 19%)으로 나타났다.<sup>12)</sup> 이 결과는 먼저 성별로 보면 남성 310.2분, 여성 266.5분으로 남성의 여가시간이 여성보다 43.7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여가시간이 여성의 경우보다 43.7분 많은 것은 김외숙의 연구에서 조사된 외국 사례(남성이 30분 더 많음)와 비교해볼 때 14분 더 많은 양이며, 이는 한국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가사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조사에서 밝혀졌듯이, 조사대상자 전체 남자의 노동시간은 237.4분이고 여성의 노동시간은 147.7분으로 남성이 많이 앞서지만,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의 경우를 보면 남성은 33.6분, 여성은 192.6분으로 더욱 큰 격차를 보인다. 이렇듯 여성의 시간이 가족관리에 많이 치중되어 있는 만큼 여가시간이 남성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연령대별 여가시간을 보면, 60대 이상의 여가시간이 369.9분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고, 반대로 30대는 247.4분, 40대는 263.3분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한국인의 30대와 40대는 전체 평균 여가시간 287.1분에도 못 미칠 정도로 가장 분주한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왕성한 사회활동을 펼치는 세대라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일 수 있지만, 총 24시간 중 여가시간이 4시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은 여전히 한국사회가 개인일상생활의 시간 사용에서 여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드러내준다. 또 한 가지 10대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의 여가시간은 272.3분으로 30대와 40대 다음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10대들의 여가시간이 이토록 적은 이유는 한국의 교육적 상황을 미루어 볼 때

12) 통계청에서 발표한 전 국민의 여가활동 시간은 5시간 13분이지만 이 글에서는 각주 10)에 명기한 소분류 항목을 제외한 여가활동 시간을 산정한 것이므로 시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략 짐작할 수 있겠지만, 이는 오늘날 10대 문화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여겨진다.

이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 한국인들의 여가시간은 그중 절반이 대중매체 이용에 활용되고 있다. '대중매체 이용' 시간은 평균 145.3분으로써 전체 여가시간 287.1분 중에서 약 50.6%에 해당한다. 그 외 여가활동 시간을 살펴보면,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은 60.4분, 교제활동 54.1분,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24.8분,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2.4분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인의 여가활동 시간이 대중매체 이용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으며, 레저, 관람 및 문화행사 등의 활동에는 참여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말해준다.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여가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점은 거꾸로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그만큼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찍이 푸트남이 미국사회의 사회자본을 분석하면서 대중매체, 특히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결정적이라고 주장했듯이(Putnam, 2000), 한국사회의 경우에도 이에 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여가활동 시간의 특징을 연령대별 및 성별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자. 여가활동 시간을 연령대별로 검토해보는 것은 세대문화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도 남녀 간의 성차별과 불평등의 새로운 측면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표2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의 경우 대중매체 이용(남성 111분과 여성 135분)과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남성 101.1분과 여성 73.3분)에 보내는 시간이 많다면, 30대 이후부터는 대중매체 이용과 교제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30대 이후부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증가하며,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시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건강과 의학 담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만큼 노인인구의 레저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점을 반증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가시간이 많은 만큼 교제활동에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현재 60대 이상의 한국인들은 대중매체 이용에 가장 많은 시간(전체 여가시간 369.9분 가운데 204.8분)을 보내면서도 교제활동과 집 밖 레저활동에도 가장 활발하다

표2-연령대·성별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

(단위: 분)

연령대	성별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전체
10대	남성	36.7	104.8	2.7	20.4	124.3	288.8
	여성	49.1	118.1	3.5	7.9	75.3	253.7
	전체	42.5	111.0	3.1	14.5	101.1	272.3
20대	남성	53.5	133.2	5.8	21.0	102.9	316.4
	여성	57.3	137.8	7.9	14.4	49.8	267.3
	전체	55.6	135.7	7.0	17.3	73.3	289.0
30대	남성	49.4	131.5	2.3	22.5	60.2	266.0
	여성	55.6	123.1	2.3	17.2	32.4	230.6
	전체	52.7	127.1	2.3	19.7	45.6	247.4
40대	남성	49.9	148.4	1.0	31.0	53.4	283.7
	여성	55.1	131.5	1.1	24.5	31.8	244.0
	전체	52.6	139.7	1.1	27.6	42.3	263.3
50대	남성	55.7	172.5	0.7	38.8	54.8	322.5
	여성	58.5	144.4	0.9	27.8	31.3	262.9
	전체	57.2	157.8	0.8	33.0	42.5	291.3
60대 이상	남성	60.5	235.6	1.3	49.9	69.3	416.6
	여성	69.2	183.3	0.8	28.3	55.9	337.4
	전체	65.6	204.8	1.0	37.2	61.4	369.9
전체	남성	50.1	151.0	2.2	29.9	77.1	310.2
	여성	57.7	140.3	2.6	20.3	45.6	266.5
	전체	54.1	145.3	2.4	24.8	60.4	287.1

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런 만큼 노인들을 위한 대중매체 내용뿐만 아니라 여가문화의 경우에도 좀 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제활동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경우에는 10대와 20대를 제외한 그 이후의 연령대에서는 모두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언급했듯이, 30대 이후가 대체적으로 결혼 이후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가사노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그와 같은 역전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여가활동에서도 여성들의 이용시간은 남성들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들의 여가시간 부족은 젠더적 차원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남성들보다 교제활동 시간이 많다는 점 또한 다른 각도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성들의 교제활동이 남성들의 교제활동과 과연 유사한 속성을 지닌

표3-유배우자 남성과 여성의 여가시간 차이

(단위 : 분)

성별	미취학자녀	경제활동	노동시간	가정관리	가족 돌봄	여가시간
유배우 남성	유	유	369.3	19.6	33.1	237.6
		무	42.5	49.3	57.2	410.1
	무	유	356.4	23.4	6.3	281.0
		무	26.0	54.7	16.7	529.6
유배우 여성	유	유	272.5	155.2	107.4	165.9
		무	2.8	239.0	218.6	245.6
	무	유	301.9	176.5	18.1	204.0
		무	11.4	261.6	41.1	343.5

것인지 따져본다면 교제활동을 여가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이용시간이 남성들에 비해 낮은 점은 다음 표3을 통해 일정 정도 규명될 수 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유무에 상관없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일상생활에서 여가시간이 더 없다는 점은 많은 연구를 통해 사실로 밝혀져왔다. 물론 계급이나 계층적 변수 혹은 직업이나 지위 변수들을 고려해볼 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여성들의 일상생활은 남성들에 비해 좀처럼 여유가 없다. 왜냐하면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이 부담하는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에서 남성들과 상당한 격차를 두고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활동을 하면서 미취학자녀를 둔 유배우자 남성의 여가시간이 237.6분인데 비해 여성의 경우는 165.9분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여성들은 가정관리에 155.2분, 가족 돌봄에 107.4분을 보내는 반면, 남성들은 각각 19.6분과 33.1분을 보내는 데 불과하다. 비록 남성보다 여성의 노동시간이 적게 나타나지만 노동시간의 격차에 비해 가사노동과 가정관리에 보내는 시간의 격차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다. 유배우자 여성들의 경우는 미취학 자녀를 두지 않은 경우에도 가정관리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성별에 따른 시간불평등 자체가 성차별과 직접적인 관련을 갖는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봐야 하지만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가족 돌봄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젠더적 차원에서 분명히 문제점으로 봐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업별 변수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의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자. 노동과 여가가 엄격히 분리된 현대사회에서 직업의 속성은 여가시

표4-직업별·성별 여가활동과 여가시간

(단위 : 분)

직업별	성별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전체 여가시간
전문직·관리직	남성	50.4	136.3	2.6	35.9	54.5	279.7
	여성	51.9	105.3	6.6	18.6	40.9	223.4
	전체	51.0	124.6	4.1	29.4	49.4	258.4
기술공·준전문가	남성	50.3	135.7	2.6	29.7	59.2	277.6
	여성	48.4	115.0	4.3	17.8	42.2	227.7
	전체	49.7	128.9	3.2	25.8	53.6	261.1
사무직	남성	51.9	135.2	2.6	28.6	48.7	267.0
	여성	53.6	112.0	5.4	17.0	35.6	223.6
	전체	52.8	123.7	4.0	22.8	42.2	245.4
서비스·판매	남성	46.9	134.0	1.7	24.7	59.7	267.1
	여성	48.0	104.4	1.4	15.3	31.2	200.3
	전체	47.6	114.8	1.5	18.6	41.2	223.6
농림어업·숙련업	남성	64.3	177.6	0.8	18.9	54.5	316.0
	여성	53.7	121.0	1.0	8.7	36.9	221.2
	전체	58.9	148.8	0.9	13.7	45.5	267.8
기능원·관련종사자	남성	49.8	139.1	1.6	22.3	57.4	270.3
	여성	46.2	106.3	0.8	11.4	19.5	184.3
	전체	49.2	133.2	1.4	20.3	50.6	254.7
장치, 기계조작·조립종사자	남성	46.2	124.7	1.0	21.6	54.1	247.5
	여성	41.3	98.9	1.1	13.2	23.5	178.1
	전체	45.4	120.6	1.0	20.2	49.3	236.5
단순노무·기타 종사자	남성	42.0	146.6	1.5	21.7	57.6	269.5
	여성	46.7	112.8	0.8	11.7	27.1	199.0
	전체	44.4	128.9	1.1	16.5	41.6	232.5
학생	남성	40.1	107.6	3.3	20.7	118.4	290.1
	여성	52.3	119.5	4.9	8.7	72.0	257.4
	전체	45.9	113.2	4.0	15.0	96.4	274.5
무직	남성	64.8	262.2	2.7	65.3	108.3	503.4
	여성	70.3	187.2	1.8	33.2	48.9	341.4
	전체	68.9	206.7	2.0	41.5	64.3	383.4

간을 결정하는 데 커다란 변수로 작용한다. 한 개인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여가의 질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표4는 직업별 여가활동과 여가시간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우선 두드러진 특징부터 살펴보면, 교제활동의 경우 무직자가 68.9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다음으로 농림어업 및 숙련업 종사자들이 58.9분을 보낸다. 반대로 교제활동에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직업은

단순노무직 종사자들로 이들은 44.4분을 사람과 만나는 데 활용한다. 다음으로 대중매체의 이용시간은 무직자들이 206.7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반대로 학생을 제외하고 서비스·판매직이 114.8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자영업자에 속하거나 판매직 노동자들의 경우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직업에 비해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판매직의 경우는 전체 여가시간도 다른 직업들에 비해 가장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직 및 관리직 종사자들은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스포츠 및 레저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 종사자들의 경우 대체적으로 경제자본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큰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다만 무직자의 경우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다른 직업집단에 비해 절대적으로 많지만 이것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활동과 유사한 성격의 여가활동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사회인구학적 변수 중 성, 연령 그리고 직업을 중심으로 여가활동 시간의 차이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여가시간의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연령대를 세대별로 재분류하여 여가활동 시간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한다.

## 2. 세대별 특징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의 차이

세대 간 차이나 특징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대부분 문화연구의 맥락에서 세대의 특징과 세대 차이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그간의 경향이었다면, 시간 차이를 통한 세대별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시간은 개인뿐만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공유하는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에서 세대 연구는 시간적 변수를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 세대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살펴봄으로써 세대 내 특징을 더욱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세대별 차이를 규명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절에서는 세대별 여가활동 시간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19세 이하를 청소년층으로, 20세 이상 65세 미만을 청장년층으로, 그리고 65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청장년층의 경우 연령대 범위가 넓기 때문에 다소 이들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이 글에서 청장년층을 하나의 세대범주로 설정한 것은 이들 집단이 대체적으로 경제활동 혹은 본격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연령대에 속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 그 외 다른 연령대에 비해 유사성이 더 높을 것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연령대를 넓게 설정하였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한 세대집단으로 범주화할 수 없다. 단지 이 절에서는 청장년층보다는 청소년층과 노인층 간의 차이를 좀 더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로써 구세대와 신세대 간의 여가활용 시간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차이를 명료하게 나타내는 데 주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단순히 세대별 차이만을 분석하기보다는 여가활동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는 거주지 특성과 혼인상태 및 경제활동 여부를 고려하여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표5는 조사대상자를 세대별, 도시 크기(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별로 구분하여 여가활동과 여가시간의 차이를 알아본 것이다. 여가활동은 개인이 처한 공간적 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시 규모와 형태를 고려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농촌과 비교해볼 때 대도시의 경우는 여가활동 공간이 도시계획에 의해 훨씬 더 잘 마련되어 있으며, 소비공간 또한 도시인들의 이동경로와 시간 활용을 고려하여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가의 공간으로 잘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람들이 어떤 곳에 사느냐 하는 문제는 여가활동의 성격을 달라지게 할 수 있으며, 시간 활용 또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도시생활자들이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쓸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여가공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가를 누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일상을 살아간다면 공간적 변수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표5를 통해 세대별 도시 규모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은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청소년층의 경우 전체 여가시간은 272.3분으로 청장년층(272.7분)과 거의 차이가 없지만 노인층(390.7분)과는 큰 격차를 보인다. 65세 이상이 대략 은퇴연령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노인층의 여가시간이 다른 세대에 비해 많다는 점은

표5-세대별, 도시 크기별 여가활동과 여가시간

(단위 : 분)

세대별	도시 크기별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전체
청소년	대도시	43.5	108.9	3.1	14.8	99.4	269.8
	중소도시	40.7	108.5	3.2	13.8	101.4	267.6
	농어촌	43.1	121.7	2.6	14.8	105.6	287.8
	전체	42.5	111.0	3.1	14.5	101.1	272.3
청장년	대도시	53.3	142.5	2.7	26.1	51.4	276.0
	중소도시	55.2	142.0	2.6	26.4	48.1	274.4
	농어촌	55.2	137.3	1.6	20.7	46.8	261.7
	전체	54.3	141.3	2.5	25.1	49.5	272.7
노인	대도시	66.3	241.8	0.8	44.2	69.2	422.3
	중소도시	70.5	238.7	1.1	50.7	69.5	430.5
	농어촌	70.8	187.2	0.8	25.7	65.6	350.1
	전체	69.3	215.9	0.9	37.1	67.6	390.7
전체	대도시	52.7	144.8	2.7	25.6	61.4	287.1
	중소도시	53.9	144.4	2.6	26.2	60.0	287.1
	농어촌	57.5	147.6	1.6	21.2	59.1	287.0
	전체	54.1	145.3	2.4	24.8	60.4	287.1

쉽게 추론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사회생활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청장년층보다도 여가시간을 적게 보낸다는 점에서 청소년층을 위한 여가문화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도시 규모별 차이를 보면, 농어촌 청소년층의 경우 전체 여가시간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보다 약 20분 정도 많고, 이 시간은 대중매체 이용으로 그대로 전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어촌 청소년들이 대도시 및 중소도시 청소년들에 비해 대중매체 이용시간을 포함하여 전체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들이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한다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높다는 측면에서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달리 노인층의 경우는 대도시에 사는 사람일수록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늘어난다. 대도시에 사는 노인들의 대중매체 이용시간은 241.8분이고 중소도시의 경우는 238.7분으로 거의 차이가 없지만 농어촌 노인들의 경우는 187.2분으로 이용시간이 가장 낮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가활동 중에서도 스포츠 및 집 밖 레저활동 시간이 25.7분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농어촌 노인들의 전체 여가시간은 교제활동을 제외하고 대도시 및 중소도시 노인들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표6-세대별·혼인상태별 여가활동과 여가시간

(단위: 분)

세대별	혼인상태별	교제활동	대중매체	관람 및	스포츠 및 집	취미 및 그 외	전체
			이용	문화행사 참여	밖의 레저활동	여가활동	
청소년	미혼	42.5	110.9	3.1	14.5	101.1	272.1
	유배우	43.8	206.9	0.0	20.0	98.1	368.8
	전체	42.5	111.0	3.1	14.5	101.1	272.3
청장년	미혼	56.9	140.2	7.5	20.6	80.5	305.7
	유배우	53.1	141.1	1.3	26.2	41.9	263.7
	사별, 이혼	59.6	146.5	1.2	25.6	43.1	276.0
	전체	54.3	141.3	2.5	25.1	49.5	272.7
노인	미혼	58.3	288.3	0.0	1.7	85.0	433.3
	유배우	62.4	219.9	1.2	38.8	64.4	386.7
	사별, 이혼	78.8	210.3	0.4	34.7	72.0	396.2
	전체	69.3	215.9	0.9	37.1	67.6	390.7
전체	미혼	49.0	124.1	5.0	17.2	91.9	287.2
	유배우	54.2	150.6	1.3	27.7	44.6	278.4
	사별, 이혼	69.8	180.2	0.8	30.4	58.3	339.5
	전체	54.1	145.3	2.4	24.8	60.4	287.1

농어촌 노인들의 여가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유는 65세 이상이 되어도 여가활동 외의 노동시간이 여전히 많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로 표6에서는 세대별 혼인상태에 따라 여가활동과 여가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sup>13)</sup> 미혼, 유배우 혹은 사별이나 이혼 등 혼인 여부에 따른 여가활동은 개인이 아닌 가족관계적 맥락 속에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여가시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청장년층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들 중 미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80.5분)과 관람 및 집 밖의 레저활동(7.5분)에 보내는 시간이 많다. 특히 청장년층이나 노인층 중에서 사별이나 이혼한 사람들이 교제활동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노인의 경우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288.3분으로 가장 많은 것과 달리 사별이나 이혼한 노인들은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미혼이나 유배우자들보다 적고, 교제활동(78.8분)이나 레저활동(34.7분)에 많은

13) 청소년 유배우자의 경우 조사대상자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한된 설명력을 갖고 있지만 미혼자에 비해 전체 여가시간과 대중매체 이용 여가활동 시간이 약 1시간 35분 많다는 점은 매우 특이하다. 그리고 이 표만으로는 이와 같은 차이를 해석하기 어렵다. 청소년 유배우자가 하루 24시간 중 어떤 중분류 시간을 줄이고 대중매체 이용 시간을 증가시키고 있는지는 추가 분석을 요하는 부분이다.

표7-세대별 · 경제활동별 여가활동과 여가시간

(단위 : 분)

세대별	경제활동별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전체 여가시간
청소년	경제활동	56.8	102.0	4.5	11.8	78.6	253.8
	비경제활동	42.0	111.4	3.0	14.6	102.1	273.0
	전체	42.5	111.0	3.1	14.5	101.1	272.3
청장년	경제활동	49.2	123.1	2.2	20.3	44.9	239.7
	비경제활동	66.5	185.1	3.1	36.8	60.4	351.9
	전체	54.3	141.3	2.5	25.1	49.5	272.7
노인	경제활동	58.4	161.8	0.8	18.4	51.0	290.4
	비경제활동	76.3	250.9	0.9	49.1	78.3	455.6
	전체	69.3	215.9	0.9	37.1	67.6	390.7
전체	경제활동	50.1	126.2	2.1	20.0	45.9	244.3
	비경제활동	59.2	169.2	2.7	30.7	78.6	340.4
	전체	54.1	145.3	2.4	24.8	60.4	287.1

시간을 보낸다. 따라서 미혼상태에 있는 노인들의 표본이 매우 적었다는 점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는 힘들지만, 사별과 이혼상태에 있는 노인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여가활동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여가문화의 정착과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고립감이나 외로움 등을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해 극복하고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여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대별 경제활동에 따른 여가활동 시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경제활동 여부에 따라 여가활동의 성격이나 여가시간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노동과 여가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표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제활동자들은 전반적으로 비경제활동자들보다 전체 여가활동에 보내는 시간이 짧다. 청소년층을 제외한 청장년층과 노인층은 모든 여가활동에서 비경제활동자들의 여가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노동이 있는 사람들이 전체 여가시간은 적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관람 및 문화행사, 스포츠 및 레저, 취미 등의 적극적인 참여형 여가활동을 더 많이 하고, 수입노동이 없는 사람들은 대중매체 이용 등 수동적 여가활동을 많이 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나는 점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 같은 현실은 경제활동자

의 노동시간이 전반적으로 여가활동 전체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며, 수입에 상관없이 경제활동자들은 시간부족과 시간압박으로 인해 여가활동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돈은 벌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여유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해보면, 세대별 여가활동 시간은 노인층이 가장 많은 여가시간을 보내며, 혼인상태별로는 사별과 이혼한 사람들, 그리고 경제상태별로는 비경제활동자들이 여가시간을 많이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활동 중 대중매체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다. 대중매체 이용이 여가생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사실은 ‘여가의 식민화’ 현상으로 명명될 수 있지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해본다면 몇 가지 변화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대중매체 이용시간만을 독립적으로 분석하면서 그중에서도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다른 여가시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V.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변화와 특징: 1999-2004년

### 1.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변화와 세대별 특징

대중매체가 현대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엄청나지만 누가 대중매체를 얼마나 이용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전환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어떤 집단들이 대중매체를 가장 많은 시간 동안 이용하는지에 따라 여가문화의 차이도 동시에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먼저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변화를 살펴보기로 하자. 1999년 생활시간조사와 비교하여 2004년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변화를 보면 표8에서 보는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대중매체 이용시간은 1999년 147.9분에서 2004년 145.3분으로 줄어들었다.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것은 다른 여가활동에 이용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인구학적 특성별 차이를 들여다보면,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표8-주요 인구학적 특성별 대중매체 이용시간

(단위 : 분)

구분	변인	2004년	1999년
성별	남성	151.0	155.6
	여성	140.3	141.1
연령별	10대	111.0	134.5
	20대	135.7	142.3
	30대	127.1	133.9
	40대	139.7	133.9
	50대	157.8	157.0
	60대 이상	204.8	193.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8.9	160.9
	고등학교	136.8	148.0
	대학교 이상	136.7	142.9
혼인상태	미혼	124.1	
	유배우	150.6	148.6
	사별, 이혼	180.2	
경제활동	경제활동	126.2	122.4
	비경제활동	169.2	179.1
직업별	전문·관리직	123.3	125.9
	준전문·사무직	124.9	123.2
	서비스·판매	114.4	106.6
	기능·단순노무	127.5	124.2
	농림어업·숙련업	148.8	138.8
조사 요일	평일	126.7	130.8
	토요일	158.2	156.0
	일요일	188.4	193.8
전체		145.3	147.9

전체 대상자 모두에게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증가한 집단을 보면 연령별로는 40대·50대·60대 이상,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 경제활동별로는 수입노동이 있는 자, 직업별로는 준전문·사무직, 서비스 판매, 기능·단순노무, 농림어업·수산업 종사자들이다. 종합해보면,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40대 이상의 유배우자의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증가한 것이다. 이들은 1999년과 2004년 사이에 다양한 여가활동에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오히려 대중매체 이용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점에서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여가문화를 향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조사요일별 대중매체 이용시간을 보면 평일과 일요일에는 감소했지만 토요일에는 1999년 156.0분에서 158.2분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변인은 토요일

표9-성별·연령별·세대별 대중매체 이용시간

(단위: 분)

성, 연령, 세대별	신문	잡지	텔레비전	비디오	라디오	음악 듣기	컴퓨터	대중매체 이용
남성	7.7	0.4	128.4	1.7	1.5	0.7	10.5	151.0
여성	2.6	0.8	124.9	1.3	1.2	1.0	8.3	140.3
10대	0.6	0.3	95.5	1.6	0.6	1.7	10.8	111.0
20대	2.5	1.0	100.4	4.0	0.8	1.6	25.4	135.7
30대	5.0	0.7	105.2	2.5	0.7	0.8	12.1	127.1
40대	8.1	0.7	122.7	0.7	0.9	0.5	6.1	139.7
50대	7.6	0.5	144.4	0.4	1.5	0.5	2.9	157.8
60대 이상	5.8	0.4	193.7	0.1	3.6	0.4	0.7	204.8
청소년	0.6	0.3	95.5	1.6	0.6	1.7	10.8	111.0
청장년	6.0	0.7	120.4	1.7	1.0	0.8	10.6	141.3
노인	5.3	0.4	205.1	0.1	4.2	0.3	0.4	215.9
전체	5.0	0.6	126.6	1.5	1.3	0.9	9.4	145.3

휴무(또는 격주 휴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변화와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들을 살펴보았다면, 대중매체를 좀 더 세분화하여 각각의 이용시간 차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정보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대중매체 이용시간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다양한 논의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를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구매체(old media)라고 할 수 있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혹은 신문이나 잡지 등의 이용시간과 컴퓨터 혹은 비디오와 같은 신매체(new media) 이용시간의 차이를 통해 그것의 영향력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대중매체 이용 여가활동은 표9와 같이 신문·잡지·텔레비전·비디오·라디오·음악 듣기·컴퓨터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한국인의 대중매체별 이용시간을 살펴보면, 총 대중매체 이용시간 145.3분 중 텔레비전 이용시간이 126.6분으로 총 대중매체 이용시간 대비 87.13%에 이른다. 이는 한마디로 텔레비전 이용이 한국인의 대중매체 이용 여가 행동을 지배 혹은 장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많고 텔레비전, 컴퓨터, 신문 등의 이용에 여가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텔레비전, 신문 이용시간을 줄이는 대신 컴퓨터를 다른 연령대보다 가장 많이(25.4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성별·연령별·세대별로 모두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가장 많고, 30대 이하 연령층은

표10-세대별·경제활동별 대중매체 이용시간

(단위 : 분)

연령대	경제활동별	신문	잡지	텔레비전	비디오	라디오	음악 듣기	컴퓨터	대중매체 이용
청소년	경제활동	1.2	0.5	74.1	2.6	0.9	2.5	20.2	102.0
	비경제활동	0.6	0.2	96.3	1.6	0.6	1.6	10.4	111.4
	전체	0.6	0.3	95.5	1.6	0.6	1.7	10.8	111.0
청장년	경제활동	6.1	0.6	104.9	1.4	0.6	0.6	8.9	123.1
	비경제활동	5.8	1.1	157.8	2.5	1.9	1.4	14.6	185.1
	전체	6.0	0.7	120.4	1.7	1.0	0.8	10.6	141.3
노인	경제활동	3.9	0.3	153.9	0.0	3.1	0.1	0.3	161.8
	비경제활동	6.2	0.5	238.2	0.1	4.9	0.4	0.5	250.9
	전체	5.3	0.4	205.1	0.1	4.2	0.3	0.4	215.9
전체	경제활동	5.9	0.5	108.8	1.3	0.9	0.5	8.3	126.2
	비경제활동	4.0	0.7	148.8	1.8	1.9	1.3	10.7	169.2
	전체	5.0	0.6	126.6	1.5	1.3	0.9	9.4	145.3

컴퓨터를, 40대 이상 연령층은 신문을 텔레비전 다음으로 많이 보고 있다. 특히 노인층의 경우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총 215.9분 중 205.1분(94.99%)이 텔레비전 시청시간이고 라디오(4.2분) 이용시간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노인층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많은 만큼 노인층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표10에서 세대별 경제활동 유무에 따른 대중매체 이용시간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수입노동이 있는 사람은 신문을, 수입노동이 없는 사람은 텔레비전과 컴퓨터를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수입노동이 없는 사람의 컴퓨터 이용 행동이 수입노동이 있는 사람보다 많다는 점은 이들의 이용 행동이 텔레비전과 마찬가지로 이른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여가활동으로 소비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관련해서는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대중매체별로 보면 텔레비전의 경우는 수입노동이 없는 사람에게서 많은 이용 행동이 나타나고, 연령이 높은 세대일수록 더 많이 시청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컴퓨터는 수입노동이 있는 청소년이 가장 많은 이용 행동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수입노동이 없는 청장년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신문은 청장년과 노인 세대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행동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의 신문·잡지 이용 행동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매체의 불균형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여가시간 287.1분 가운데 대중매체 이용 여가시간은 145.3분으로 전체 여가시간 대비 대중매체 이용 여가시간이 50.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대중매체 이용 여가시간 145.3분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126.6분으로 대중매체 이용시간 대비 87.13%로 나타나 대중매체 이용 여가활동의 약 87%가 텔레비전 시청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텔레비전 시청시간과 여가시간의 관계를 보아도 전체 여가시간 287.1분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126.6분으로 전체 여가시간 대비 44.09%(약 44.1%)에 이른다. 이러한 과중한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온 현상으로서 이에 주목하여 ‘텔레비전에 의한 여가시간의 식민화·표준화·사사화·동시화’ 등을 주장한 이재현의 연구를 뒷받침해준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그러나 텔레비전 시청의 과잉화가 여가시간의 식민화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가시간의 식민화’ 태세가 갖고 있는 단순함과 비역사성의 문제는 자칫 한국인의 일상생활이 지닌 역동성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본다면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장악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 미약하게나마 변화의 징후를 읽어낼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인터넷 이용시간의 변화이다. 디지털매체의 발달로 컴퓨터 이용시간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인터넷 이용시간이 증가함으로써 생활시간의 할당이 재구조화되고 있다는 강남준 외의 연구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sup>15)</sup>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인터넷 사용에 따른 생활시간 재분배현상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별도의 검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다음 절에서는 텔레비전 시청시간의 변화와 시청형태에 따른 여가활동의 다양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14) 이재현, 『生活樣式의 私事化와 텔레비전에 대한 依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3).

15) 강남준·이재현·오현경, 「인터넷 이용에 따른 생활시간 패턴의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1호(2008), 163-169쪽.

## 2. 텔레비전 시청시간과 여가활동

표11은 주요 인구학적 특성별 텔레비전 이용 행동과 여가시간을 1999년과 2004년의 통계 자료를 비교하여 그 변화를 검토한 것이다. 이 시기는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2002년에 실시된 주5일 근무제의 부분 시행이 여가활동에 미치는 영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잠정적 합의는 대체로 주5일 근무제로 인해 한국인의 여가시간이 증가할 것이며, 여가활동 또한 다양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소득의 증가와 노동시간의 감소는 자연스럽게 여가문화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나타난 분석 결과는 통상적인 의견과는 다르게 여가시간만 놓고 보면 1999년보다 2004년에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1999년 130.4분에서 2004년 126.6분으로 감소했지만 여가시간과 대비해볼 때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42.3%에서 44.1%로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전체 여가시간은 감소했지만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여가시간에서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은 여전히 여가활동을 텔레비전에 의존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주요 인구학적 특성별·변인별 중 40대 이상의 중년층과 기능·단순노무직·농림어업·숙련업 종사자들의 텔레비전 시청시간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집단에 한정해서 보면 여가시간 및 여가활동의 다양화는 아직 요원하다고 볼 수 있다.

표11에서 1999년과 2004년을 비교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줄었다. 그런데 통상 여성이 남성보다 텔레비전을 더 많이 시청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이 이 연구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2004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남성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여성보다 더 많게 나타났다. 그런데 여가시간 대비 비율로 보면 남성은 41.4%인 데 비해 여성이 46.6%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은기수의 최근 연구는 여가시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으며, 여가시간에서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가에서의 성별 차이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시간의 성별 차이로 이어지고



표11-주요 인구학적 특성별 텔레비전 시청시간과 여가시간 비교

구분	변인	2004년			1999년		
		텔레비전 시청시간	여가시간	비율	텔레비전 시청시간	여가시간	비율
성별	남성	128.4	310.2	41.4	133.2	333.3	40.0
	여성	124.9	266.5	46.9	128.0	286.4	44.7
연령별	10대	95.5	272.3	35.1	117.6	282.2	41.7
	20대	100.4	289.0	34.7	114.6	326.1	35.1
	30대	105.2	247.4	42.5	115.5	274.6	42.1
	40대	122.7	263.3	46.6	115.5	282.9	40.8
	50대	144.4	291.3	49.6	144.3	310.7	46.4
	60대 이상	193.7	369.9	52.4	182.0	391.8	46.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51.2	307.3	49.2	152.8	318.8	47.9
	고등학교	117.6	267.2	44.0	128.7	300.3	42.9
	대학교 이상	102.6	283.3	36.2	111.7	326.8	34.2
혼인상태	미혼	98.8	287.2	34.4			
	유배우	133.2	278.4	47.9	132.5	296.7	44.6
	사별, 이혼	173.6	339.5	51.1			
경제활동	수입노동 있음	108.8	244.3	44.5	107.4	253.2	42.4
	수입노동 없음	148.8	340.4	43.7	158.6	375.8	42.2
직업별	전문·관리직	93.5	258.4	36.2	97.2	285.9	34.0
	준전문·사무직	98.6	251.6	39.2	123.9	272.0	45.6
	서비스·판매	100.2	223.6	44.8	118.6	224.9	52.7
	기능직·단순노무	114.7	240.9	47.6	111.8	246.4	47.8
	농림어업·숙련업	142.1	267.8	53.1	130.8	272.9	47.9
조사 요일	평일	108.4	254.6	42.6	135.4	276.4	49.0
	토요일	138.2	314.3	44.0	158.6	323.5	49.0
	일요일	169.5	357.2	47.5	174.7	394.0	44.3
전체		126.6	287.1	44.1	130.4	308.4	42.3

있다고 주장한다.<sup>16)</sup>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전반적으로 증가했으며, 60대 이상의 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노인의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전체 여가시간 대비 약 52%에 이르고 있다. 요일별로 살펴보면, 텔레비전 시청은 평일과 주말 모두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전반적인 여가감소 시간은 텔레비전 시청시간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텔레비전 시청시간의 증가와 감소가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16) 은기수,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텔레비전 시청시간의 성별 차이」,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4호(2010), 424쪽.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서 세대별 텔레비전 시청시간의 차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특히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1999년에 비해 늘어난 노인층의 텔레비전 시청시간대를 살펴보면 이들의 일상생활 시간구조를 대략 파악해볼 수 있다. 그전에 남성과 여성의 시청시간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기로 하자.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한국인 남성과 여성 모두 오전 8-11시, 오후 6-10시 등의 시간대에 텔레비전 시청 행위자 비율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전에는 주부들의 여가 패턴이 상당 부분 텔레비전 시청으로 동시화되고, 저녁 시간에는 텔레비전 시청에 의한 여가 패턴의 동시화 현상이 성별 구별 없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 텔레비전 시청시간을 보면 오전 8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여성의 시청시간이 많고,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는 남성이 여성보다 시청시간이 많다. 이는 남성의 경제활동이 여성보다 많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은 세대별·시간대별 텔레비전 시청시간대를 나타낸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성별에 따른 시청시간대와는 다르게 세대별로는 다소 차별적인 텔레비전 시청 패턴을 보이고 있다. 먼저 청소년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방과 후 시간대인 4시부터 텔레비전 시청이 점점 증가하여 9-10시에 정점을 이루고, 수면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10시 30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청장년은 경제활동 시간이 끝나는 6시 이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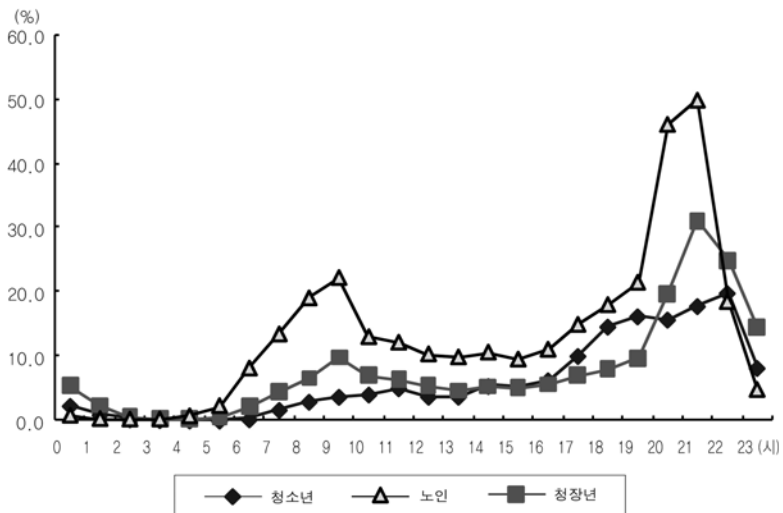


그림1-세대별·시간대별 텔레비전 이용자 비율

점점 늘어나다가 7시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9시에 정점을 이룬 후 10시경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노인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른 세대보다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많고, 오전에는 8시, 오후 7-9시대에 가장 많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노인층의 경우 10시 이후에 급격히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은 텔레비전 시청시간대에 관한 연구는 방송산업이나 방송프로그램 개발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황금시간대에 어떤 내용의 방송프로그램들이 방영되는지에 따라 일반 대중들의 사회인식이나 정치의식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는 세대의식의 차이를 증폭시킬 수도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텔레비전 시청시간의 절대적인 양을 기준으로 텔레비전 시청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다른 여가활동 시간과의 관계를 파악해보도록 하자. 표12는 텔레비전 이용행동을 2시간(120분) 이상 텔레비전을 보는 중시청자(2만 7893명/44.1%),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보는 일반 시청자(1만 5779명/24.9%), 10분 이상 1시간 미만 보는 경시청자(1만 565명/16.7%) 그리고 전혀 보지 않는 무시청자(9,031명/14.3%)로 나누어 텔레비전 이용 행동과 여가활동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이른바 텔레비전 중시청자의 경우 일반 시청자나 무시청자와 다른 여가활동 패턴을 보일 것이라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재확인하고, 그 외 새롭게 발견된 특징들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텔레비전 중시청자는 하루 평균 246.5분(약 4시간 7분)이나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전체 여가시간도 3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전체 여가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전체 여가 396.8분의 62.12%에 해당하는 246.5분을 텔레비전 시청에 소비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텔레비전 중시청자들(2만 7893명/44.1%)이 전체 텔레비전 시청시간과 행위자 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전반적으로 전체 여가시간이 많은 사람들이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교제활동,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등도 많이 하고 있으나, 다만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에는 오히려 적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표12-텔레비전 이용 행동별 · 성별 여가활동과 여가시간

(단위 : 분)

텔레비전 이용 행동별	성별	교제활동	대중매체 이용	관람 및 문화 행사 참여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전체 여가시간
무시청	남성	53.8	20.4	3.0	21.8	81.2	180.3
	여성	60.4	15.5	3.9	15.9	42.0	137.7
	전체	57.1	18.0	3.4	18.9	61.7	159.1
경시청	남성	49.2	54.4	2.4	23.8	71.1	201.0
	여성	56.2	49.5	2.8	16.7	39.8	165.0
	전체	52.9	51.8	2.6	20.0	54.6	181.9
일반 시청	남성	48.0	105.4	2.2	25.4	73.1	254.1
	여성	56.8	99.1	2.7	18.7	44.4	221.8
	전체	52.7	102.0	2.5	21.8	57.6	236.7
중시청	남성	50.3	258.9	1.8	37.4	80.1	428.6
	여성	58.0	235.5	2.0	23.8	49.6	369.0
	전체	54.4	246.5	1.9	30.2	63.9	396.8
전체	남성	50.1	151.0	2.2	29.9	77.1	310.2
	여성	57.7	140.3	2.6	20.3	45.6	266.5
	전체	54.1	145.3	2.4	24.8	60.4	287.1

두 번째로 텔레비전 일반 시청자는 평균 대중매체 이용 여가활동 시간이 102.0분으로 평균 대중매체 이용 여가활동 시간 145.3분보다 43.3분이 적다. 전체 여가시간 236.7분 대비 약 43.09%에 해당한다. 그리고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57.6분, 교제활동 52.7분,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21.8분 등으로 대중매체 이용 여가활동 시간 편차가 심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로 텔레비전 경시청자는 평균 대중매체 이용 여가활동 시간이 51.8분으로 평균 대중매체 이용 여가활동 시간 145.3분보다 93.5분이 적다. 전체 여가시간 181.9분 대비 약 28.48%에 해당한다. 그리고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54.6분, 교제활동 52.9분,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20.0분 등으로 역시 대중매체 이용 여가활동 시간 편차가 심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무시청자의 경우에는 취미 및 그 외 여가활동 시간이 61.7분으로 가장 많고, 뒤를 이어 교제활동 57.1분, 스포츠 및 집 밖의 레저활동 18.9분, 대중매체 이용시간 18.0분, 관람 및 문화행사 참여활동 3.4분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에 의하면, 텔레비전 중시청자들에게만 텔레비전에 의한 ‘여가의 식민화’ 현상이 보이고 일반 시청자의 경우에는 다른 여가활동에 비해 좀 더 대중매체 이용 여가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더구나 경시청자와 무시청자의 경우에는 대중매체 이용 여가활동 시간이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선행 연구와 달리 텔레비전에 의한 여가의 식민화 현상은 범주를 나누어 텔레비전 중시청자에 한정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것은 여가활동에서 텔레비전 이용 행동 변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인식시켜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VI. 맺음말 : 요약 및 함의

이 글은 200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여가활동 시간의 전체적인 분포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시간의 사용 및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거시적 변화를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을 검토하고 여가활동과 대중매체 이용시간 간의 쟁점을 부각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9월 현재 10세 이상 한국인의 여가시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4시간 47분(287.1분, 약 19%)이며, 성별로 보면 남성 310.2분, 여성 266.5분으로 남성의 여가시간이 여성보다 43.7분 길다. 남성의 여가시간이 여성보다 43.7분 많은 것은 외국보다 약 14분 더 많은 것이다.

둘째, 총 대중매체 이용시간 145.3분 중 텔레비전 이용 여가 행동 시간은 126.6분으로 총 대중매체 이용시간 대비 87.13%에 이른다. 이는 텔레비전 이용 여가 행동이 한국인의 대중매체 이용 여가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대중매체 이용시간이 많고, 텔레비전·컴퓨터·신문 등의 이용 행동에 여가시간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20대가 텔레비전과 신문의 이용시간을 줄이는 대신 컴퓨터를 가장 많이(25.4분) 이용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성별·연령별·세대별로 모두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가장 많고, 30대 이하 연령은 컴퓨터를, 40대 이상 연령은 신문을 텔레비전 다음으로 많이 보고 있다. 특히 노인의 경우는 대중매체 이용시간 총 215.9분

중 205.1분(94.99%)이 텔레비전 시청시간이고 라디오(4.2분) 이용시간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전체 여가시간 287.1분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126.6분으로 전체 여가시간 대비 44.0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과중한 텔레비전 시청시간 사용 문제는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서 '텔레비전에 의한 여가시간의 식민화, 여가시간의 표준화, 여가 패턴의 동시화' 등으로 명명하고 있는 세계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컴퓨터·신문·라디오·비디오 이용시간은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대중매체 이용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컴퓨터는 20대, 신문은 40·50대, 비디오는 20대, 라디오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도시 크기별로는 컴퓨터·신문·비디오는 대도시 및 중소도시, 라디오는 농어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조사 요일별로는 컴퓨터는 주말, 신문은 평일과 토요일, 비디오는 주말, 라디오는 평일에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

다섯째, 2004년 여가시간이 1999년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2002년 실시된 주 5일 근무제의 부분 시행이 여가활동에 영향(여가시간의 증가, 여가활동의 다양화)을 미치고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다. 텔레비전 시청시간이 감소하는 것은 여가활동 다양화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요 인구학적 특성별·변인별 여가시간에 대한 텔레비전 시청시간의 비율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텔레비전 이용 행동 의존도가 1999년에 비해 2004년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은 역다양화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을 보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남성이 많고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 시간은 여성이 많다. 이런 현상은 직업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생활시간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거시적 변화와 쟁점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 자료에 이어 2004년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외의 선행 연구에서 '텔레비전에 의한 여가시간의 식민화, 표준화, 여가 패턴의 동시화'로 명명되고 있는 텔레비전 과시청현상이 증시청자에 한정될 수 있다는 이 글에서의

분석 결과는 앞으로의 이 분야 연구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 글이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거시적 변화와 쟁점을 부각시키는 데 관심을 가짐으로써 상대적으로 미시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결여되는 한계가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강남준·이재현·오현경, 「인터넷 이용에 따른 생활시간 패턴의 변화-2000년, 2005년 생활시간 조사를 활용한 통시적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1호, 2008, 145-180쪽.
- 김복수, 「한국인의 여가와 미디어 사용」. 오만석 외,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I-생애주기별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A, 225-263쪽.
- \_\_\_\_\_, 「한국인 부부의 일상생활-20세 이상 59세 이하 부부의 노동시간과 여가시간」. 오만석 외,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I-생애주기별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B, 89-132쪽.
- \_\_\_\_\_, 「한국인의 여가시간-30대, 40대, 50대 유배우자를 중심으로」. 박영도 외,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II-일상생활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C, 89-125쪽.
- 김의숙, 「생활시간의 국제비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문가 워크숍 PPT 자료 파일, 2009.
- 김현주·이창현·박소라,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직장인들의 주말 여가문화 이용행태 변화-설문조사를 통한 실시집단과 비실시집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1회 여가·문화 포럼-주5일 근무제 도입과 생활문화의 변화』 자료집, 여가·문화학회, 2002, 24-37쪽.
- 문옥표 편, 『한국인의 소비와 여가생활』.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 125-189쪽.
- 박세혁,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가족 여가 살리기」. 『제1회 여가·문화 포럼-주5일 근무제 도입과 생활문화의 변화』 자료집, 여가·문화학회, 2002, 15-22쪽.
- 박영도·은기수·박수미·김복수·오만석·김정석·이윤석,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II-일상생활의 쟁점』.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여가·문화학회, 『주5일 근무제 실시 이후 직장인 생활 변화에 대한 조사』. 여가·문화학회 조사연구보고서 2002-1, 2002.
- 오만석·은기수·김복수·이윤석·김정석, 『한국인의 생활시간과 일상생활 I-생애주기별 접근』.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 은기수, 「한국인의 일상생활에서 텔레비전 시청시간의 성별 차이」. 『정신문화연구』 제33권 제4호, 2010, 397-426쪽.
- 이재현, 『生活樣式의 私事化와 텔레비전에 대한 依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_\_\_\_\_, 「勞動과 텔레비전, 그리고 生活 패턴의 同時化」. 『언론정보연구』 제31집,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1994, 117-143쪽.
- \_\_\_\_\_, 「생활시간 패턴과 텔레비전 편성」. 『방송문화연구』 제8집, 한국방송공사, 1996, 267-291쪽.



이재현, 「여가, 텔레비전, 그리고 인터넷-생활시간으로 본 미디어 구도의 변화」. 『방송문화연구』 제13집, 2001.

최용준, 『주5일 근무와 TV 시청』.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칙센트미하이, 미하이 저, 이희재 역, 『몰입의 즐거움』. 해냄출판사, 1997.

파커, 스탠리 저, 이연택·민창기 역, 『현대사회와 여가』. 일신사, 1995.

황익주, 「공장 노동자들의 여가생활: 경기도 성남지역 노동자들의 사례 연구」.

Gershuny, Jonathan, *Changing Times: Work and Leisure in Postindustrial Society*, Oxford Univ. Press, 2000.

Hochschild, A. R., *The Time Bind: When Work Becomes Home and Home Becomes Work*, New York: Metropolitan Books, 1997.

Hochschild, A. R. and Machung A., *Second Shift*, Viking, 1989.

Putnam, Robert D.,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A Touchstone Book, 2000.

Robinson, John P. & Godbey, Geoffrey, *Time for Life: The Surprising Ways Americans Use Their Time*,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Press, 1999.

Schor, J. B., *The Overworked American: The Unexpected Decline of Leisure*, New York: Basic Books, 1992.

\_\_\_\_\_, *The Overspent American: Why We Want What We Don't Need*, New York: Basic Books, 1998.

## 국 문 요 약

이 글의 목적은 200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여가활동 시간의 전체적인 분포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여가시간의 사용 및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거시적 변화를 중심으로 몇 가지 특징을 검토하고 여가활동과 대중매체 이용시간 간의 쟁점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체로 한국인의 여가시간은 하루 24시간 가운데 4시간 47분(287.1분, 약 19%)이며 성별로 보면 남성 310.2분, 여성 266.5분으로 남성의 여가시간이 여성보다 43.7분 길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총 대중매체 이용 여가시간 145.3분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126.6분으로 대중매체 이용시간 대비 87.13%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체 여가시간 287.1분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126.6분으로 전체 여가시간 대비 44.09%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을 보면 노동시간과 여가시간은 남성이 많고 가정관리와 가족 돌봄 시간은 여성이 많으며, 컴퓨터·신문·라디오·비디오 이용시간은 전체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대중매체 이용 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글은 통계청에서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생활시간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의 여가활동과 대중매체 이용시간의 거시적 변화와 쟁점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있으며, 특히 1999년 자료에 이어 2004년 자료를 지속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투고일** 2011. 3. 14.

**수정일** 2011. 5. 2.

**게재 확정일** 2011. 5. 13.

**주제어(keyword)** 여가(leisure), 대중매체(mass media), 텔레비전 시청(TV viewing), 시간이용(time use)